

창립 2015년 3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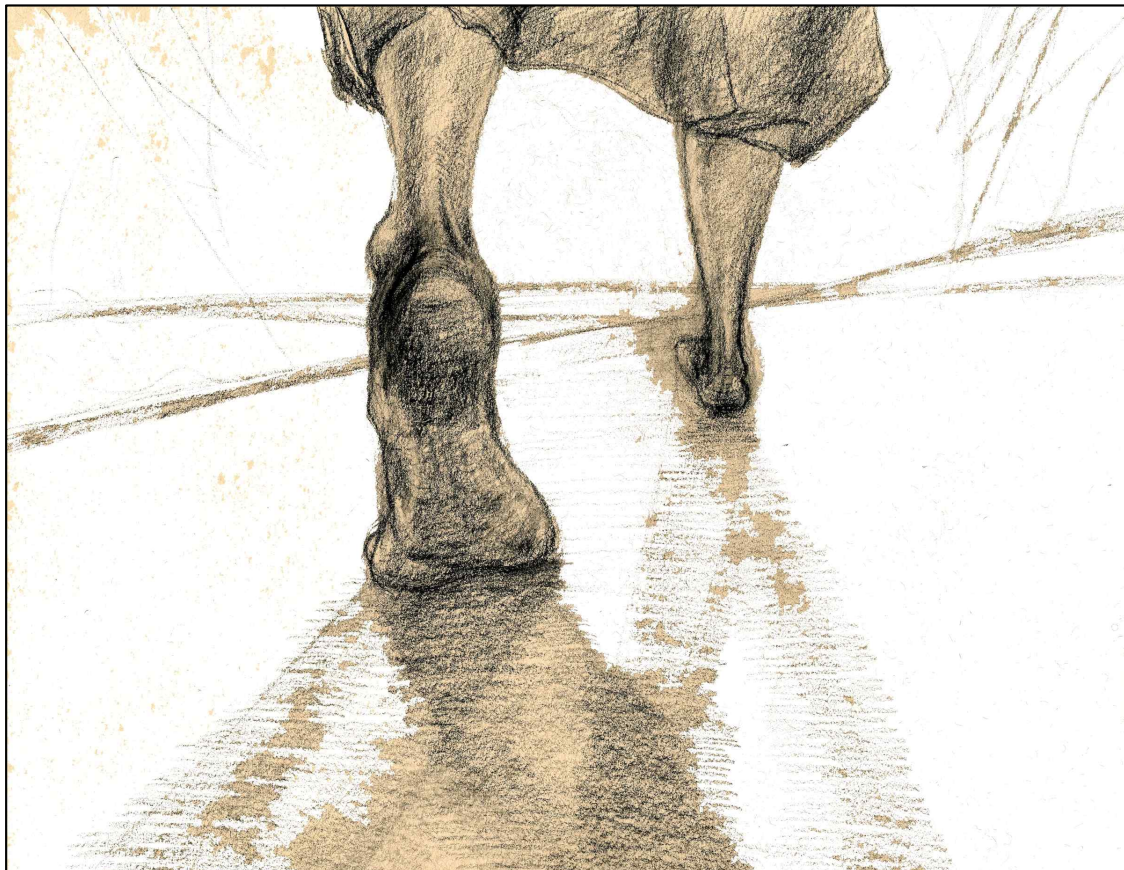
주소 서울 서초구 마방로2길 20(2층 / 양재동241-5번지)

홈페이지 www.woomorum.or.kr

2020년 11월 1일

성찬주일

6권 44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요14:6

움오름교회는 ...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과 이웃의 부름에 응답하며,
높은 산이 아닌 작은 오름을 지향합니다.

성 찬 주 일 예 배

2020년도 표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요 18:4)

인도: 황혁

* 부름의 말씀 시 107:1-7 인도자

* 성령임재기원 인도자

* 찬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p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여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여 주

* 성찬기도 다같이

하나님~ 11월은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술한 열매를 나누던 나
 무가 낙엽 져 홀몸으로 서 가더라도 고향치 않게 하옵소서. 전
 염병이 스며든 삶은 굴품했지만, 그 시간을 더 아끼며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11월은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뜻대로 되지 않았고,
 원대로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체념치 않게 하옵소서. 소소한
 낭만을 느끼며, 잃은 것이 많은 이들과 따뜻한 불 밝히는 사람
 이께 하옵소서.

하나님~ 11월은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
 을 흔들더라도 행한 가슴으로 빈들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전
 설 속 동화인 듯 소망의 불씨를 품고 평안을 전하는 전령이게
 하옵소서.

이런 바램과 소망을 안고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슬픔은 자
 기 길로 가게 하시고, 은총은 거룩한 떡과 잔에 가득하며, 소생케
 하는 영은 우리 가운데 환하게 임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인 도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기에 앞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세계 앞에 자행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회 중 땅은 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기도는 주문서처럼 목록이 되었습니다. 이식과 생존 앞에선 세속적 방법을 우선했습니다. 불만과 불평은 내면을 계속 불붙였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고요한 청음의 시간은 가물합니다. 너무 자주 선생이 되었고 심판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난한 은총의 구걸자이길 구합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신앙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길 구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침묵기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롬 6:13, 욥 3:10)

인 도 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 * 찬송 찬 515장 다같이
 기도 황예인
 송영 ‘우리 기도 들으소서’ 다같이
 우리 기도 들으소서 우리 마음 아시오니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의 평화를 내리소서. 아멘
- * 성경봉독 요 20:19-23 인도자
- * 송영 ‘주의 말씀은’ 다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아멘
- 말씀선포 ... ‘성령을 받으라’ ... 유경호
 기도 설교자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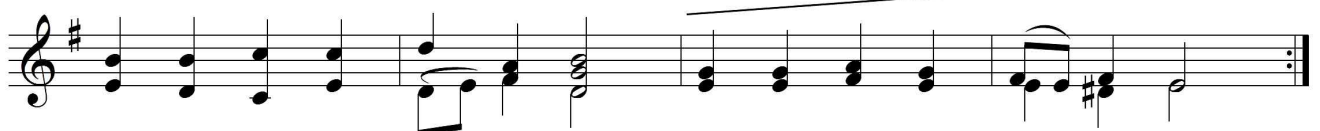
찬 미 하 여 라 거 룡 한 주 이 름

- * 성찬으로 초대 집례자

집례자 이 식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초대
 이며,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
 는 거룩한 사귄입니다>(*성찬참여 못한 이를 위한 기도)



오 소 서 성 령 이 여 사 랑의길 로 인 도하소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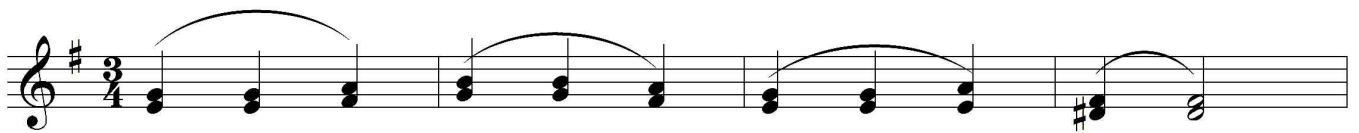
오 소 서 성 령 이 여 우 리 에 게 오 소 서

* 성만찬 참여 다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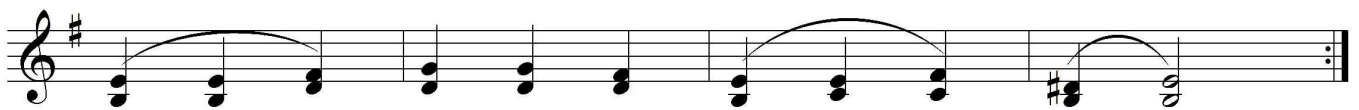
분병집례 주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바 나의 몸, 곧 언약의 몸이니라”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몸된 떡 받는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 리 는 예 수 를 바 라 뵈 니 다



우 리 의 주 님 을 바 라 뵈 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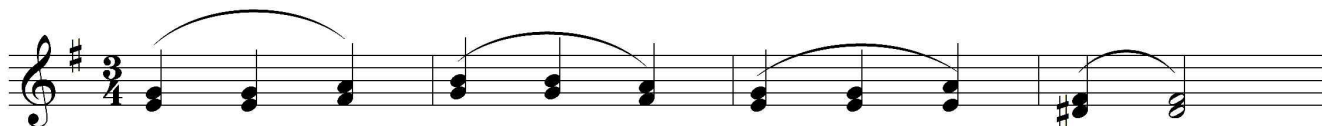
분병 후 기도 집례자

< 떡을 받으신 후 집례자 기도 후 함께 드십니다. >

분잔집례 식후에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피된 잔 받는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 리 는 예 수 를 바 라 뵈 니 다



우 리 의 주 님 을 바 라 뵈 니 다

분잔 후 기도 집례자

< 잔을 받으신 후 집례자 기도 후 함께 드십니다. >

: 마신 잔은 왼쪽으로 전달했다 테이블 위에 두시면 됩니다.

나눔찬양 ‘두려워 말라’ 다같이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께시니 아쉬움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안에서

* 예물봉헌 ‘내가 가진 모든 것’ 다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나 받은 귀한 선물을 주께 바치리. 아멘

* 봉헌기도 인도자

*봉헌: 김재란

* 결단찬양 ‘우릴 사용하소서’ 다같이
 * 축도 유경호
 Meditation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같이
 (*바이올린: 한혜리 *첼로: 왕혜진, 황예지 *피아노: 양재웅)
 환영과 알림 인도자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오 실그날까
 지우리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
 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하물
 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수없네 우리 교회는 이땅의 희
 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뻔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